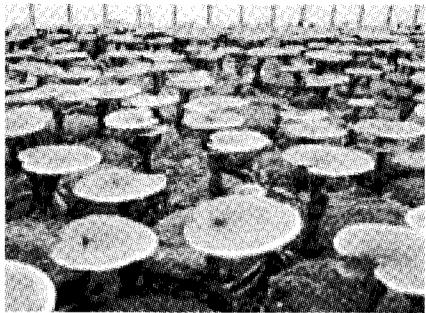


영지버섯 장목재배법 효과적 단목재배비 45% 수량성 증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영지버섯을 재배할 때 골목으로 활용하는 참나무 등을 1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종균을 접종하는 장목재배법을 이용하면 노동력 절감은 물론 수량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00년부터 영지버섯 장목재배법을 농가에 접목해 시험한 결과 한평(3.3)당 수확량은 단목재배의 경우 2년간 평균 2.2kg이 생산됐으나 장목재배에서는 이보다 45% 증가한 3.2kg이 수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균접종부터 균사배양 완료까지 투입되는 노동력도 골목 1당 11.3시간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단목재배의 37.8시간에 비해 26.5시간이나 단축시킬 수 있었다.

도농업기술원이 밝힌 영지



버섯 장목재배법은 먼저 1.5m 높이의 원목을 야외에서 비닐과 거적을 덮고 스티

폼열로 12시간 열처리를 하되 온도는 6065℃가 유지되도록 한다. 종균은 열처리 후 2일 정도 지나서 접종하며 접종 부위에서 자실체가 형성되면 골목을 모래에 묻는다. 이때 모래를 덮는 두께는 2cm 정도가 알맞

다. 복토 후에는 이를 간격으로 모래가 마르지 않을 정도의 관수를 한다

홍화 10cm 간격 2~3줄 파종 꽃잎 채취량 15~22% 증가

경북도농업기술원 신물질연구소는 홍화 재배시 포기 사이를 좁혀 심는 밀식을 하면 관행보다 홍화 꽃잎의 수량이 15~22% 증가한다고 밝혔다.

꽃잎 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폭이 1m인 이랑에 포기 사이를 10cm로 해서 2줄이나 3줄로 씨앗을 파종해 재배하면 된다. 관행 재배의 경우 이랑에 포기 사이를 15cm로 해서 한 이랑에 2줄로 심었다. 수확은 꽃잎이 선홍색으로 변하는 개화 후 4일째 되는 날 해야 품질 좋은 꽃잎을 많이 채취할

수 있다.

신물질연구소가 이같은 방법으로 홍화를 재배한 결과, 10a(300평)당 꽃잎 수확량이 2줄로 심었을 때 25kg, 3줄로 심었을 때 27kg으로 관행의 22kg보다 15~22% 향상됐다.

김세종 신물질연구소 농업연구사는 "3줄로 심으면 꽃잎 수확량은 많지만 종자 수량이 다소 감소하므로 종자와 꽃잎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가는 2줄로 밀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의:054-832-9669.

'황정' 재배 짚 3cm 두께로 덮으면 수량늘고 잡초 덜생겨

충북도농업기술원(원장이양희)에 따르면 약용작물인 황정(충충동굴레)을 재배할 때 아무것도 덮지 않는 것보다 종균을 심은 후 짚을 3cm 정도 두께로 덮어 주면 수량이 15% 늘고 73% 정도의 잡초방제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시험재배 결과 밝혀졌다.

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는 이를 위해 10a당(300평) 완숙퇴비 1,000kg과 질소 10kg, 인산 10kg, 칼리 10kg을 밑거름으로 주고 흙을 잘게 로터리친 뒤 폭 180cm의 이랑을 만들어 황정 종균을 30×20cm 간격으로 심어 흙이 보이지 않도록 약 3cm 정도로 짚을 덮어 관리해왔다.

도농업기술원은 그 결과, 10a당 수량이 3,640kg에 이

러 아무것도 덮지 않은 관행재배의 3,142kg보다 15% 정도가 늘었으며, 낙엽과 왕겨를 덮어주었을 때의 3,327kg, 3,472kg보다 수량이 5%와 1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의:043-219-2638.

농촌의 작은 산간마을 주민들이 인근 산에서 자생하는 약초와 열매·산나물 등 100여가지의 산야초를 원료로 건강발효 음료를 개발, 본격 시판에 나섰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화리 주민들은 제천시농업기술센터의 농촌여성일

하여 향아리에 1년 이상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산야초 발효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산채랑 야채랑〉이란 상표로 본격 판매에 들어간 산야초 발효음료는 유기산과 유용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며, 오랜

100여가지 들풀의 힘 '산채랑 야채랑' 음료 개발

감 갖기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예부터 구전돼오던 산야초 발효음료를 만들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해발 1,087m의 백운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이 마을은 해발 500m 이상의 백운산에서 채취한 약초와 산열매·산나물, 그리고 유기농법으로 직접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초·어성초 등 100여가지의 약초를 계절별로 채취

기간 숙성·발효시켜 향과 맛이 부드럽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백운면 운화리 이길자씨(59)는 "이는 우리땅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만든 알칼리성 신토불이 건강음료로, 특히 높은 산에서 자생하는 산야초와 열매류를 원료로 해서 만든 까닭에 도시인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43-651-3509

작두콩 웃거름 10a 4~6kg 시비 관행보다 16% 증수

충북도농업기술원은 작두콩을 재배할 때 웃거름을 10a(300평)에 4~6kg 수준으로 주면 웃거름을 주지 않는 관행재배에 비해 수확량이 16% 증가한다고 밝혔다.

웃거름은 꽃필 때 한차례, 꽃핀 뒤 20일 후 두차례에 걸쳐준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작두콩은 생육기간이 180일 정도로 긴 편이기 때문에 생육 후기에 질소질 비료를 더 줘야 영양생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도농업기술원이 이같이 질소를 준비해 작두콩을 하우스 재배한 결과, 수확량이 10a에 평균 320kg으로 웃거름을 주지 않았을 때의 280kg보다 증가했다.



작두콩은 동남아와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도입됐는데,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치질·축농증·중이염·위염·대장염 등에 효과가 있어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기능성 작물이다.

문의:043-219-2636.

황기 흰가루병 방제 '리프졸수화제' 효과

황기 재배때 발생하는 흰가루병 방제법이 구명됐다.

경북도농업기술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여름철 장마기에 많이 발생하는 황기 흰가루병 방제에

일부 적용 약제를 사용한 결과, 이 중 3가지의 약제에서 80 이상의 방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시험한 자료에 따르면 휘나리유제 3,000배액과 아족시스트로

빈액상수화제, 리프졸수화제 2,000배액 등 3가지 약제를 방제 초기 잎과 줄기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10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한 결과, 휘나리유제 83, 아족시스트로빈액상수화제 86.7, 리프졸수화제 87.9의 방제율을 보였고 약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054-673-8064.

작약 홍화등 소면적 작물 농약 14종 새로 등록

작약과 홍화 등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 14종이 새로 등록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1998년부터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지난해까지 상추와 쑥갓, 시금치 등 16개 작물, 36종의 농약을 등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작약과 홍화 등 약용작물을 포함한 9개 작물, 14종의 농약을 추가 등록했다"

그동안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해서는 농약 제조업체들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농약 개발에 소홀, 농가들이 다른 작물의 농약을 마구잡이로 사용함으로써 농약 잔류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었다.

농진청은 현재 13개 작물, 42개 품목에 대한 약효·약해시험과 12개 작물, 34개 품목에 대한 잔류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올해 말쯤에는 주요 생식용 일채소류에 살포하기 적합한 농약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